

2023 문화계 결산 <2> 공연

# 대규모 기획 공연·신진 기획자 활발... 전통예술공연도 눈길

어느 때보다도 억눌렸던 공연 열기가 뜨거웠던 한 해다. 작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공연계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였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대관사업 등이 활성화되면서 예술계 전반이 활기를 되찾았다.

광주에서 한 해 동안 펼쳐진 다양한 공연들은 양적으로 풍부해졌지만, 질적으로도 완숙함을 더했다는 평가다. 올해 광주시립발레단이 5·18의 정신을 담은 작품 'DIVINE'이 대표적이다. 7월 14-15일 광주예술의전당(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 공연은 광주만의 브랜드가치와 철학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손꼽힌다. 3년여에 걸쳐 플로어링(무대바닥)의 틀 보수, 균등한 음압을 제공하는 라인어레이 등을 재정비한 뒤 지난 재개관한 전당도 다채로운 공연의 장이 됐다.

다양한 초청공연도 공연 흥행에 가세했다. 10월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펼쳐진 '2023 ACC 슈퍼클래식 킹스 싱어즈'는 아카펠라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이들은 '아리랑', BTS '전하지 못한 진심' 등 들려줬는데, 굵직한 베이스 토대 위에 바리톤, 카운터테너로 이루어진 화성음들은 어떤 기악도 인간의 목소리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열정이 느껴지는 연극 작품들도 다수 무대에 올랐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제1회 예향, 전남! 전국연극제'는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여주시민회관과 전남문화예술포럼, 여수문화홀,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등에서 펼쳐졌다.

'극단 역사(그날, 기억)', '극발전소301(말정리스트)', '문화예술공방 바람꽃(우리말 글)'을 비롯해 '생이 아름다운 극단(강제결혼)', '연극집단 반

시립발레단 5·18 답은 'DIVINE' '슈퍼클래식 킹스 싱어즈' 초청공연 '예향, 전남! 전국연극제' 첫 개최 기악 합주·퓨전국악공연 등 선사

(예외와 관습), '크레이션(나르는 원더우먼)' 등이 본선에 진출해 관객들을 만났다.

광주 서구문화원이 여는 '제9회 광주시민연극제'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렸다. 아마추어 극단들의 다양한 연출과 특색 있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였는데, 극단 정거장의 개막작 '강물에 글 쓰고 바람에 색깔하니'를 필두로 씨어터연 바람에서 각각 프로젝트도담도담과 여배우봄날씨가 광주광역시 창작희곡공모전 수상작을 무대에 올렸다.

광주예총의 '제14회 아트페스티벌'도 의미있는 행사였다. 지난 10월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극장에서 무용, 연극, 연예, 음악, 국악협회 등 소속 단체들의 무대가 펼쳐졌다. 로얄발레단은 '인형요정(The Fairy Doll)', 광주성악가협회 5인의 성악가(서재원, 김백호, 임현진 등)를 중심으로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등을 선보였다.

이 같은 큰 공연들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감동도 인상적이지만, 신진 기획자들이 주는 소규모 기획 공연도 여느 해보다 다채로웠다는 평가다. 청년문화회비가 운영하고 광주시가 후원하는 '호랭이스쿨'은 예비 문화기획자들을 위한 실천형 문화기획



킹스싱어즈 멤버들이 공연에 앞서 아카펠라를 들려주고 있다.

전문학교를 표방했다. 올해 3기를 맞아 차세대 문화기획자들의 생애 첫 프로젝트 등을 펼치도록 지원했으며, 그중 신진기획자 최혜지 씨는 10월 25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Remember Artist'을 열어 광주시장상을 받기도 했다. 예술대학 졸업 후 공연 기회가 없는 연주자들을 위해 무대를 마련한 것.

아울러 11월 5일 박지영 씨가 기획한 '행위예술가의 집-EP.1 우리는 다 '몸'으로 이야기했었다'는 다원예술공연의 정수 '행위예술'을 매개로 예술의 길을 걷는 소회를 풀어냈다. 김가영 기획자가 11월 10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마련한 '한 번쯤은

들여본 음악, 뮤지컬리타에'도 '젓가락 행진곡', '하늘' 등 익숙한 레퍼토리를 재해석하는 시간이었다.

거리로 뛰쳐나온 공연 '거리극'도 있었다. '2023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바로 그것, 10월 20~22일 양일간 동구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예술의거리 일원에서 볼 수 있었다. 공연장을 '일탈'하는 것처럼 거리에서 선보인 서커스, 민주광장 행진 퍼포먼스, 연희극 등은 세계 수준의 '거리 공연'의 정수를 보여줬다.

한편 신명과 감동의 전통예술공연도 눈길을 끌었다. 국립남도국악원은 토요일 상설 '국악이 좋다'를

통해 11월에는 기악합주 '도드리', '가야금병창', '태평무', '박종선류 아쟁산조' 등을 선사했다.

광주문화재단도 신진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주는 토요일 상설공연을 지난 4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서석당에서 총 30회 열었다. 특히 마지막 토요일 상설 공연에서는 아쟁연주가 김나후의 '김일규류 아쟁산조', 소리꾼 신기희의 '보성소리 강산재 심정가' 등을 들려줬다. 이외에도 8월에는 사계절 풍류를 담아내는 국악팀 '화양연화'를 초청, 퓨전국악공연 레퍼토리를 매개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ACC 예술극장 빅도어 수놓은 '미디어 파사드'

디지털 인형극 '호두까기 인형극' 그림자 예니 'Merry Christmas...' 2024년 2월4일까지 상영

따뜻하고 은은한 빛이 주위를 환하게 감싼다. 밝은 조명은 동화 속 어느 한 풍경을 현실에 재현해 놓은 느낌이다. 저물어가는 한 해의 아쉬움은 시나브로 사라지고, 다가올 갑진년 새해의 기대가 조명 속에서 잔잔하게 무르익어 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 예술극장 빅도어(가로 34m, 세로 14m)에 펼쳐진 미디어 파사드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화사하면서도 따스한 조명으로 방문객들을 맞고 있어 눈길을 끈다.

ACC가 예술극장 빅도어에 미디어 파사드 작품 두 편을 상영한다. 2024년 2월 4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30분 간격으로 디지털 인형극 '호두까기 인형극' (2분)과 그림자 예니메이션 'Merry Christmas Everyone'을 선사한다.

전자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을 디지털 인형극으로 새롭게 해석한 작품이며 후자는 ACC 무대 뒤에서 땀을 흘리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을 크리스마스 요정으로 상징했으며 프로젝트 매핑 기술을 입혔다.



ACC '예술극장 빅도어'를 은은하게 수놓은 미디어 파사드 장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무엇보다 이번 작품은 '콘텐츠 발굴-문화예술 전문가 양성 교육'에서 ACC 창작센터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생들이 힘을 보탠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제작에 참여한 박지원 씨는 "기획에서부터 실제 제작 단계에 이르기까지 무대 뒤에서 이름없이 일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를 맞아 이번 작품이 전당을 방문하는 관람객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

지 목욕하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해내는 모든 분들에게 따스함과 위로를 전해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강현 전당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프로그램이 매개로 교육과 성장한 이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이번 작품을 제작해 그 의미가 깊다"며 "ACC는 내년에 창제작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의 발전을 견인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동양적 정서에 세련미 그리고 올림

이정래 기획 초대전, 29일까지 화순 다산미술관

무등산이 커다란 함지박을 얹어놓은 듯한 형상이다. 경충하게 큰 키를 자랑하는 소나무와 붉은 기와 지붕 집들이 머리를 맞댄 모습은 푸근하면서도 정겹다.

이정래 화가의 '무등산'을 보고 있노라면, 이제껏 알지 못했던 무등산과는 다른 새로운 이미지를 접하게 된다. 서석대와 입석대가 솟은 정형화된 형상이 아닌 따스한 어머니의 품이 느껴진다. 동양적인 정서에 서양적인 기법이 접목된 작품은 세련미와 아울러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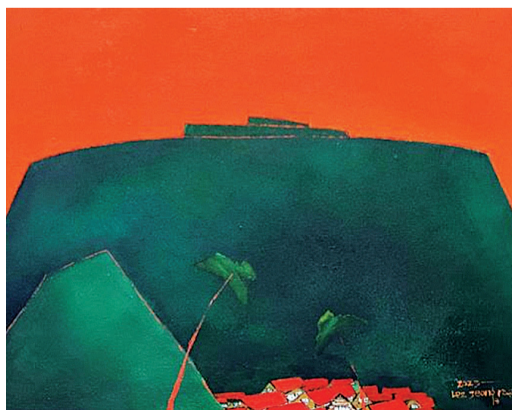
지난 19일 개관해 오는 29일까지 다산미술관(관장 이정남)에서 열리는 이정래 기획 초대전. 이 작가는 그동안 한국화를 비롯해 서양화, 서예, 문인화 등을 섭렵했다. 또한 학정 이돈홍, 금복 박

행보 등을 사숙함으로써 열린 예술관을 가지게 됐다.

화순 출신인 이정래 작가에게 이번 전시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다산미술관이 지역의 저명한 예술가를 재조명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마련했고 이 작가가 초대된 것.

전시실에서 만나는 여러 작품 가운데 '봄날' 또한 눈에 띄는 그림이다. 산과 하천과 하늘, 그리고 농토를 배경으로 두 마리의 새가 큰 날개를 펴고 허공을 나는 모습은 비할 바 없는 한가로움을 선사한다. 초록의 하늘이 물에 비친 물그림자는 아늑하고 아직 눈이 회색빛과 남은 산언저리는 유순한 정기를 발한다.

이정남 관장은 "이정래는 문인화를 토대로 동서



'무등산'

양의 재료를 적절하게 활용해 작품세계를 표현하는 작가"라며 "자신만의 철학과 사유에 현대적이면서도 감각적인 기법을 입힌 작품은 세련미와 고전적인 미를 선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산미술관은 화순 최초 사립미술관으로 지금까지 다수의 전시와 기획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재현 트롬본리스트

(고재현 제공)

## "트롬본 매력, 연주로 알려야죠"

트롬본리스트 고재현 독주회, 27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트롬본과 트럼펫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가?

음악 애호가 또는 조금이라도 클래식엔 관심이 있는 이에게는 어렵지 않겠으나, 간혹 둘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 애초에 14세기 말까지 직선이었던 트럼펫이 S자형이 되고, 여기에 슬라이드를 부착하면서 '슬라이드 트럼펫'으로 개량된 이력 등을 봐도 둘은 어딘가 비슷한 구석이 있다.

"트롬본에 대해서 대중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속상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수 있지, 내가 더 열심히 트롬본의 매력을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저 오늘도 트롬본을 불 뿐입니다"

트롬본리스트 고재현의 말을 듣고 있으면 다른 악기들에 비해 비교적 덜 알려졌지만 고유한 매력을 지닌 트롬본의 세계가 궁금해진다.

솔로악기로서 트롬본의 매력을 전하는 독주회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화제다. 트로스앙상블이 '고재현 트롬본 독주회'를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연다.

트롬본리스트 고재현은 전남대 졸업 후 프랑스로 건너가 리옹국립고등음악원을 한국인 최초로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그동안 프랑스 오베뉴 국립오케스트라, 생테티엔 시립오케스트라를 비롯해 서울시향, 성남시향 등 국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에서 객원 및 단원을 역임하면서 솔리스트로서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현재 전남과학대 출강 중이며 트로스앙상블 등에서 활동 중.

트롬본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물었다. 그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밴드부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싶어 입부했는데 음악 선생님이 신체조건 등을 보더니 '너는 트롬본을 해야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떨결에 시작했다"며 당시에 회상했다. 그렇게 시작된 트롬본과의 인연이 지금까지 십수 년, 특히 솔로악기로서 가능성까지 발견하면서 '폭 빠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악기와 연주자 사이에도 정해진 인연이 있다는 말처럼 다가왔다.

공연은 장 미셸 드피아의 '베이스 트롬본과 피아노를 위한 2개의 춤곡'으로 막을 연다. '베이스 트롬본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1번'은 알렉세이 레비데브의 곡이다.

피에르 랑티에 작품 '베이스 트롬본과 피아노를 위한 서주, 로망스 그리고 알레그로'도 울려 퍼질 예정이다. 이어 '베이스 트롬본을 위한 명상곡', '베이스 트롬본과 피아노를 위한 뉴올리언스', '베이스 트롬본, 튜바 솔로와 트롬본 4중주를 위한 바스타디아'도 레퍼토리에 있다. 각각 히다스, 보짜, 비헬스트 작품.

협연자로 한예중 예술사 등을 졸업한 임정빈이 튜바를 연주한다. 전남대 예술대를 음악학과에서 수학한 홍성혁, 목포대 음악학과를 졸업한 김의찬 등이 트롬본 연주를 들려줄 예정이다.

고재현은 "하루하루 그저 한 명의 트롬본리스트로서 악기와 제 연주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며 "협연 악기로서 울려 퍼지는 트롬본의 음색도 아름답지만, 이번 연주회를 계기로 '독주 악기'로서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다"고 언급했다.

전적 초대. /최류빈 기자 rubi@